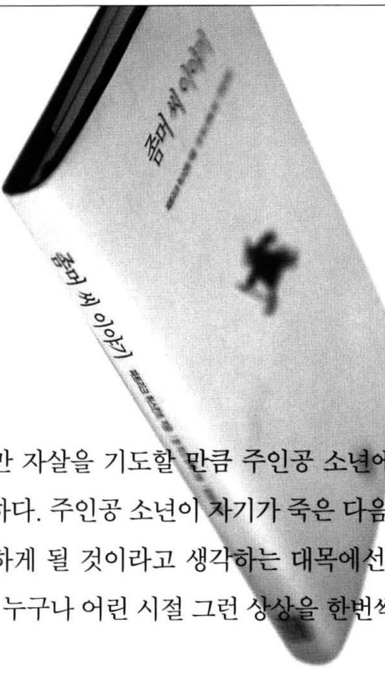
쉼 없이 걸어라 그러면 깨닫게 되리



《좀머 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 장 자끄 상뻬 그림 | 유혜자 옮김 | 열린책들 | 128쪽 | 값 6,500원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탄식, 혹은 절규와 같은 이 말은 아름다운 삽화와 함축적인 이야기 구조로 큰 인기를 누렸던《좀머 씨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의 하나로 손꼽히는 쥐스킨트의《좀머 씨 이야기》. 보통 출간된 지 한 달 안에 주목을 받지 못하면 판매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책의 운명이다. 그런 속성에 비한다면《좀머 씨 이야기》는 발간된 지 3년 만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책이다. 열린책들이 이 책을 계약했을 때 번역가들이 몰려들었다. 작품성 때문에 번역 욕심이 났던 것. 그러나 책이 나왔을 때 독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진가를 드러낸 것은 3년이라는 잠복기를 거친 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잠자다시피했던 책이 '대박' 으로 돌변했다. 1992년 발간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월 2천 부에서 4천 부의 주문량을 기록하고 있다. 총 판매량만 해도 80만 부가 넘었다.

이런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열린책들의 김영준 편집부장은 "향수를 자극하는 동화적 요소와 그림이 어필한 것 같다. 사춘기 시절의 고민과 좌절을 좀머 씨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을 등장시켜 신비롭게 그린 것이 독자를 움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렇듯《좀머 씨 이야기》의 성공 요인은 바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화 같은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 책이 유행에 따른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 첫 번째는 현실감 있는 유년의 기억을 독자들로 하여금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른이 되어 알게 되는 세상이 냉혹한 것처럼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세상 역시 그리 녹록치 않다. 그것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나' 는, 잠깐이나마 좋아하는 여자친구와의 하교길이 설레어 일주일을 준비한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오늘 그 길로 안 간다' 는 말로 '나' 의 진심쯤은 가볍게 무산시킨다. 또 피아노 선생은 내막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레슨 시간에 십 분 늦었다고 잡아먹을 듯 '나' 를 닦달한다. 형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나' 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며 못살게 군다. 결국 미수로 그치고 말지만 자살을 기도할 만큼 주인공 소년에게 일상은 충분히 고단하다. 주인공 소년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선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누구나 어린 시절 그런 상상을 한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좀머 씨이다. 그는 가족이라곤 부인밖에 없지만 부양 의무도 팽개친 채 종일토록 걸어다니는 것이 일이다. 아저씨의 기벽은 전쟁을 참혹하게 겪은 후유증 탓이라고 추측만 할 뿐 아무도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 불안해 보이는 좀머 씨. 삶에서 영원히 도망치는 길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책의 결말 부분에 이르러 '나' 의 유년기가 끝나고 좀머 씨도 죽음을 맞게 된다. 그 무렵 주인공 소년은 어른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다. '언제나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요를 받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했다' . 바야흐로 주인공 소년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렴풋했던 세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아저씨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즈음이다. 하지만 '나' 는 아저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 내가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 위에서 들었던 그 신음 소리와 빗속을 걸어갈 때 떨리는 입술과 간청하는 듯하던 아저씨의 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좀머 씨 이야기》 중에서)

좀머 씨가 일생 동안 걸어다님으로써 피하려 했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실은 책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매달 책을 찾는 3천여 명의 독자들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행간 속에서 알아낸다.

강경희 기자